



NEWSLETTER

HOME ON THE GREEN PASTURES



Our New Executive Director

Hello! My name is Joyce Kim and as of last month (August) I joined Home on the Green Pastures as executive director.



About Me: I'm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a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having moved to the U.S. during high school. I have a B.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from UCLA and worked for several years in Human Resources (HR) at Samsung. I have a Master's degree in Social Work (MSW) from USC, which led to my work in community advocacy. As a community advocate I provided support specifically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clu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educating pastors and community leaders on practical support strategies.

HOGP & Me: I first became aware of HOGP about six years ago through my work as a community advocate for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I learned of HOGP's mission to shelter Korean immigrant survivors of DV--serving those seeking to escape abusive relationship to rebuild the lives. Over the years this caught my attention and my interest, eventually leading me to join the organization. I would like to in advance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ir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the staff who will collaborate at HOGP, and to the sponsors who contribute to this vital ministry. I am committed to fostering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I look forward to Home on the Green Pastures evolving into a space filled with uplifting and joyful stories, which we will all create together.

안녕하세요, 푸른 초장의 집 원장 (Executive Director) 으로 섬기게 된 Joyce Kim 입니다. 30여년의 시간동안 한인 지역 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오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의 한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이 곳 LA 에 이민을 온 1.5 세대입니다. UCLA 에서 국제 개발을 전공한 후, 삼성 인사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 내 한인 지역 사회를 위한 저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USC 대학원에 진학하여 Master of Social Work 을 전공하고,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Community Agency 에서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심리 상담과,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실제로 돕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사회 목회자 및 커뮤니티 리더들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등을 맡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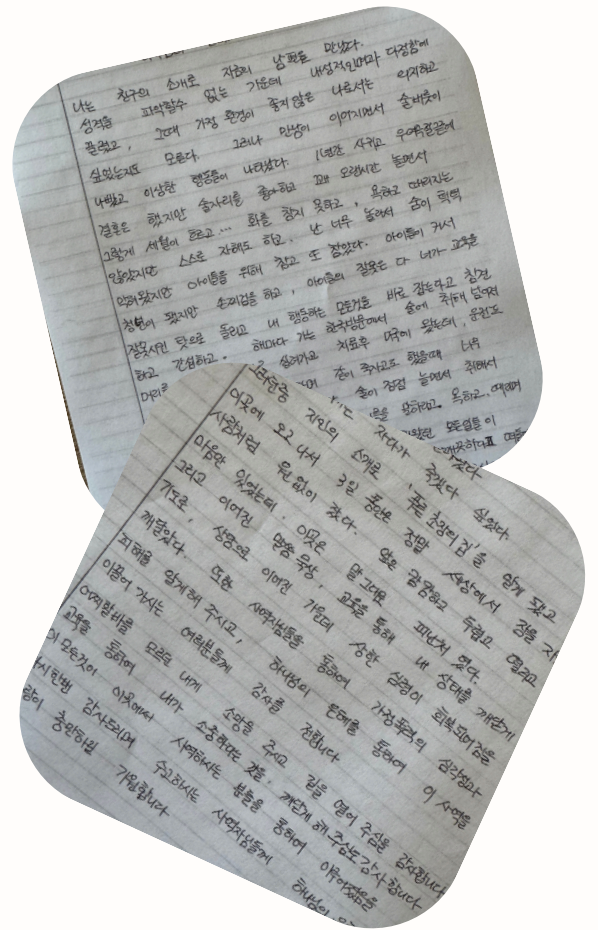
수년간 가정 폭력 피해 여성분들을 상담하며 곁에서 삶을 지켜봐온 저는 푸른 초장의 집이 운영해 오고 있는 임시 보호소와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격려해 주신 이사님들과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한인 이민 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협력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OME ON THE GREEN PASTURES



Our Client Stories: 하나님의 은혜

나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성격을 파악할수 없는 가운데 내성적인면과 다정함에 끌렸고, 그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나로서는 의지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남이 이어지면서 술버릇이 나빴고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났다. 1년간 사귀고 우여곡절끝에 결혼은 했지만 술자리를 좋아하고 꽤 오랜시간 놀면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욕하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해도 하고... 난 너무 놀라서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다.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지만 손찌검을 하고 아이들의 잘못은 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으로 돌리고 내 행동하는 모든것을 바로 잡는다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해마다 가는 한국 방문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치료후 미국에 왔는데 운전도 이상하게 하고 함부로 운전하며 같이 죽자고 했을때 너무 무서웠다. 이유를 모른채로.. 어느날 술이 점점 늘면서 취해서 나를 협박했다. 그동안 사귀 남자들 이름을 말하라고 하며 욕하고 때리며 욕박을 질렀다



그제서야 결혼 초부터 나한테 해왔던 모든일들이 깨달아졌고 이해가 됐다. 자기는 완벽하고 깨끗하다고 떠들어 대던 일들이,,, 그러다 밤마다 술에 취해 새벽 2-3시까지 나를 협박하며 구타하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도저히 이대로는 자다가 죽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밤 내가 누워있던 자리는 땀으로 물이 되었다. 아침이 두렵고 오후가 되면 그 두려움이 커져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양이 많아 지면서 폭력성은 커지고 다양해졌다. 사실을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주먹이 날아왔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주먹이 날아왔다. 이렇게 있다가는 자다가 죽겠다 싶었다.

그러던중 지인의 소개로 "푸른 초장의 집" 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들어왔다. 이곳에 오고 나서 3일 동안은 정말 세상에서 잠을 자보지 않은 사람처럼 원없이 잤다. 앞은 캄캄하고 두렵고 떨리고 죽고싶은 마음만 있었는데 이곳은 말그대로 피난처였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묵상과 교육을 통해 내 상태를 깨닫게 되었고 기도와 상담으로 이어진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짐을 깨달았다. 또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어찌할바를 모르던 내게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것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Y 자매-



HOME ON THE GREEN PASTURES



MORE NEWS...

Annual Picnic at the Park

A picnic together with HOGP's clients, staff, and families. Although it was hot, it was a great time with delicious food and refreshments, and the sound of children playing. It was fun-filled gathering, as we shared stories, laughs, and fellowship together.

푸른 초장의 집의 스태프와 가족들, 쉼터 식구들과 함께한 피크닉. 더운 날씨였지만 맛있는 음식과 다과들,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 오랜만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Thank You for the Support

In June, the Blessing Women's Choir, a Korean women's choir based in La Canada, held their annual charity concert. This year, the concert benefited Home on the Green Pastures. The concert was attended by over 400 guests, many of whom made charitable donations. HOGP received the funds in August. Thank you!

지난 6월 15일, La Canada 한인 장로교회에서 푸른 초장의 집 후원을 위한 Blessing Women's Choir 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400여명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연주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전달을 위해서 박 은미 지휘자님 (오른 쪽에서 두번째)과 이 윤희 단장님께서 푸른 초장의 집을 찾아 주셨습니다. 합창단원분들과 사역을 위해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OME ON THE GREEN PASTURES

MORE NEWS...

Client's Move Out Day

We would like to share the news of a sister who finished living in transitional housing and started a new journey with her children at her new place. Congratulations on your courageous step. (The photo above is the sister's "thank you card," and the photo below is a meal with the shelter family on a moving day)



지난 2일, transitional Housing 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신 자매님 소식을 전합니다. 용기있는 걸음을 축복합니다. (위에 사진은 자매님의 감사 카드, 아래의 사진은 moving day 에 셜터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Shelter Cleaning Day

Cleaning of the exterior of the shelter with HOGP staff. Although the weather was hot with temperatures exceeding 100 degrees, we gathered early in the morning to clean the backyard, the exterior walls of the building, and the playground where our children played.

HOGP 스테프들과 함께한 셜터 외부 대청소. 100도가 넘는 더운 날씨였지만 아침에 일찍 모여 함께한 물청소로 뒷마당, 건물의 외벽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More Ways to Support

[Amazon Wishlist \(Click Here\)](#)



Home on the Green Pastures

2024

BANQUET

SUNDAY

OCTOBER 20TH, 6PM

LOS COYOTES COUNTRY CLUB
BUENA PARK, CA

[Click to RSVP](#)